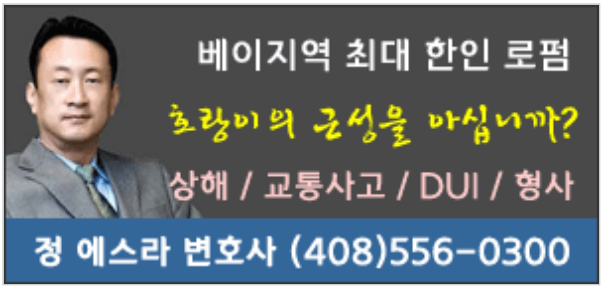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 역사문화교육 1탄 '대한민국 상징물을 찾아서'

by **KDT** *posted* **Oct 21, 2019**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19-2020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대한민국을 찾아서'로 정하고,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뿌리를 찾아주는 배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한민국의 상징물을 찾아서'를 소주제로 첫 수업을 진행했다.

최미영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은 알아도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 명칭이 'Republic of Korea'인 것은 잘 모르고 있었고, '한국'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응원가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언젠가 주소를 적는데 Seoul, DPRK로 적은 학생이 있어 깜짝 놀라기도 했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국에 관해 배우고 탐구해 보는 역사문화 여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이번 달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상징물을 찾아서'인데, 학생들이 주류학교에서 미국 국기(성조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 미국 국가를 부른다"며 "모국인 한국의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도장, 나라문장이 무엇이고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고 나누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장은 강연에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도 태극기를 흔들 수 없었고 애국가도 연주되지 않았던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태극기는 독립국가의 상징이고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고, 삼일 운동 때에는 일장기에 태극무늬와 괘를 그려 넣어 태극기로 사용했다는 최 교장의 설명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태극기 문양인 태극과 4괘인 건곤감리의 뜻, 국기에 대한 경례의 바른 자세와 국기 게양법, 애국가는 1절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학생들이 4절까지 배웠고, 애국가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바르게 부르는 태도도 배웠다.

국기에 대한 경례: 누가 바른 자세일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 누가 바른 자세일까요?

애 국 가
태극기

학생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무궁화, 나라 도장 및 나라 문장에 관해 공부하고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의 국기와 여러 나라의 국가 문장도 살펴봤다.

하늘
건
SJKPC

감
Kids of Korea

<이온안 기자>

Korea Daily Times Page view
Today : 4581 Yesterday : 10597 Total : 5775918